

삼성코닝, 전자소재 메이커로 변신!

브라운관용 유리제조 한길 ... 태산LCD·우영·한솔전자 등 타격 우려

브라운관용 유리제조 외길을 걸어온 삼성코닝이 2007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해 나노기술(NT)과 정보기술(IT) 전자재료기업으로 일대 변신한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의 핵심부품인 백라이트유닛(BLU)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백라이트유닛을 대량 납품하고 있는 태산LCD 등 국내 중견 제조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코닝에 따르면, 2003년 5월2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사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기 위해 ▷백라이트유닛 ▷나노파우더 ▷PDP 필터 ▷광소재 4개 부문을 신규사업으로 추진기로 결정했다.

백라이트유닛이란 자체 발광능력이 없는 LCD 패널 뒷면에 부착돼 편광판에 빛을 댈으로써 LCD 화면에 글자나 영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핵심부품으로 용도에 따라 모니터용, 노트북컴퓨터용, 휴대폰용, TV용 4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코닝은 백라이트유닛 등 디지털 전자정보소재 4대 신규사업에 총 5000억원을 투자해 이 부문 매출을 2007년까지 1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부문별 투자계획 등 세부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 핵심 연구인력도 모집중이다.

또 주력사업인 브라운관용 유리사업은 중국·인디아 등에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5-10년 간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하고 전자정보소재 분야를 미래 주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이 부문 매출도 현재의 5배로 늘리겠다는 목표이다.

삼성코닝 신규사업 계획

구 분	2002	2007
기존사업	브라운관용 유리, 나노파우더, 코팅유리	현행유지
신규사업	TFT-LCD용 백라이트, PDP필터, 나노사업, 광소재	
소재사업 매출	2019억원	1조1000억원
전체 매출	1조1720억원	2조원대

2002년 매출 1조1720억원 가운데 브라운관용 유리 사업이 81%, 전자재료 사업이 19%를 차지했으나 5년 내 신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키워 전체 매출을 지금의 2배 수준인 2조원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삼성코닝은 삼성의 TFT-LCD 일관생산을 위해 백라이트유닛 사업에 새로 진출기로 해 삼성전자에 이 제품을 대량 공급하고 있는 태산LCD와 우영, 한솔전자, DS LCD 4개 기업에 앞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코닝이 생산할 백라이트유닛은 삼성전자의 모니터용, 노트북컴퓨터용, TV용 LCD 제품에 공급된다. 다만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쓰는 휴대폰 LCD용 백라이트유닛은 생산하지 않는다.

LCD업계에서는 LCD 부품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특히, 대기업인 모듈기업들에서 단가인하 압력을 받으면서 수익성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삼성코닝이 백라이트유닛에 뛰어들다면 기존 기업들의 입지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라이트유닛 시장은 TFT-LCD 산업의 고성장으로 2003년에도 전년대비 3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